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점심과 오후찬양예배는 '가정의 주일'로 인해 없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은 양은임 권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다음 주일 2부 낮예배 대표 기도는 신태식 장로님입니다.
3. 3월 '월삭새벽기도회'는 3/1(금)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가집니다. 참석하셔서 새봄인 3월 첫날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제직 및 사역자 세미나'는 사정 상 한 주간 연기하여 3월 10일(주일) 점심 식사 후에 가집니다. 제직과 각 위원회 위원장 및 교사 등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교회창립 10주년 행사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준비위원장 : 박성근 장로(남선교회 회장), 부위원장 : 오효근 권사(여선교회 회장), 준비위원 : 오진석 집사(남선교회 총무), 차미자 집사(여선교회 총무), 박성대 집사(재정위원), 김진규 전도사, 박세진 청년, 권도형 청년, 허성경 청년, 신술빈 청년, 허찬송 청년, 노수연 청년
6. <하늘문의 만나> 3월호가 출간되어 본당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셔서 목상용·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2월 25일	3월 3일	3월 10일	3월 17일
예배기도(2부)	김종영 집사	신태식 장로	이문희 집사	김수환 장로
예배기도(오후)	인도자			
식사담당	가정의 주일	양은임 권사 가정	박숙이 권사 가정	유숙정 권사 가정

###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 환우들을 위해서
3.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십티(함안), 예수교회(대구), 두리원(장애인 복지시설)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구은세 ■ 협동목사: 김전희 ■ 전도사: 박일선, 김진규  
 ■ 시무장로: 유중열, 박성근 ■ 협동장로: 김윤식, 윤형근 ■ 은퇴장로: 신태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ANEULMUN'S Happiness

##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교독문 125번(사순절 2) 다같이
*경배찬송	40장(통 43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285장(통 209장)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이종영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마 7:1-5 인도자
자녀를 위한 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피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 허영진 목사
마무리기도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 8, 11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찬양예배는 '가정의 주일'로 인해 없습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사복음서 강해 마 15:28, 21:21 '믿으면 인생이 변한다'	허영진 목사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	허영진 목사
새벽기도회 (월~금)	새벽 5:30 <하루문인> 말씀묵상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허영진 목사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말과 행동의 조율

무엇을 안다는 것은 성숙의 지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안다는 것은 말을 아끼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하며 말하게 하고 입술의 움직임마저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앞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안다는 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갔을 경우에 한합니다. 그렇지 않고 안다는 것이 머리에서만 맴돌기만 한다면, 입술이 가만히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앎이 아니기 때문이며, 정확히 말해서는 될 알고 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차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는 것을 추구하고 그 아는 것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앎으로 말미암아 지배당하거나 조율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숙되지 않는 자아를 통해 판단함으로 써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철이 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인지를 고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미성숙한 자아엔 어릴 적 감정이 묻어 있고, 기질이 살아남아서 인격을 흔들고 성숙으로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아마도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아닐까요? 또한 절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아닐까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힘의 첫걸음은 배우고 아는데 있습니다. 바른 지식에서 바른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신앙인이려면 이 지식이 말과 행동을 조율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자신을 가둠이 아닌, 오히려 자신으로부터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말과 앎의 조화로움을 추구해 보면 어떨까요?

Written by 허영진